

유한양행 유재라 상을 받으면서...

김영희(루시아)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저는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김영희 루시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였고 성격도 조금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자신감도 없었으나 막냇동생은 성격도 쾌활하고 건강했는데, 그 동생이 일곱 살에 질병으로 갑자기 하늘 나라로 갔고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톨릭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천주교에 입교하여 루시아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었으며 혹시 건강이 주어진다면 환우들을 돌보고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까지 투병하게 되었는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을 때 문득 세례 때 가졌던 생각이 떠올라 단 몇 년이라도 죽기 전에 환우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이웃에 있는 환우들에게 가정 방문하고 있었는데 마침 부산 메리놀 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이 있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께서 봉사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지만, 성격이 내성적이기에 선뜻 결정은 못하고 “가정 방문하고 있는데”라고 했는데 수녀님이 용기를 주셔서 병원, 가정을 연계해서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본당에서는 연도회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억

에 남는 가정을 한 분 소개 할까 합니다.

38세 된 젊은 자매가 백혈병으로 투병, 가족은 중1, 초5. 딸과 남편 네 식구인데 집으로 방문할 때는 아이들 반찬도 좀 만들어서 가지고 갔고,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으로 방문하여 기도도 해 주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들, 남편이 안정적이 아닌 (건설노무자) 직업이어서 경제적인 상황 등 많은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는 역할과 아이들 반찬 등을 갖다주며 함께 약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병세가 악화되었고, 환자가 아이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하여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걱정되었지만 차마 꺼내기가 어려워 망설이고 있는데 마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 젊은 자매를 장의사 하는 형제들이 와서 하는 건 가족들에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을 만나자고 하여 슬며시 사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했더니 걱정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직 너무 어리고 하니까 제가 도와 줄 수 있다고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면서 쾌히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입관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 고운 손으로 목욕시켜서 이쁜 모습으로 아이들의 기억에 남도록 해 주고 싶다고 감히 청했습니다. 그 후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임종하게 되었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자매님 소원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팀이 함께 가서 입관도 하고 장지 수행까지 하면서 가족들도 감사

해했지만, 저 또한 능력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고 크나큰 체험도 하게 되어 지금까지 호스피스 전 과정을 잘 마친 케이스가 되었으며 용기도 갖게 되어 소극적인 성격이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별가족도 아이들이 어려서 3, 4년 가까이 함께하였습니다. 가족들도 지금 그 어려움을 잘 딛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평생 이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강도 축복해 주셔서 만나는 많은 환우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별가족들도 계속 만나면서 비록 저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보고 체험하게 되었으며 많은 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항상 아프기만 하였던 기억들은 없어지고 열심히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환우들, 지금은 고

인이 되어 하늘나라에 계신 영혼들과 다양한 사별가족들을 만나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 유한양행에서 유재라상을 많은 봉사자들을 대표해서 부족한 저에게 주셔서 하느님과 그동안 만났던 모든 가족에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저는 일생에 이렇게 큰돈을 가진 적이 없었기에 더욱더 감사했고, 벅찬 마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운 단체, 개인들에게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느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열어 주신 고인이 되신 영혼들과 사별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고인들도 기뻐하며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한양행재단에 감사드리며,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에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신입회원 명단

» 일반회원

- 부산메리놀병원 : 이정희, 전병섭, 박성진, 오미란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안은주, 엄수진, 이은미, 정명원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Sr.이현미, 서문택, 김중식, 박태은, 최재임, 배남호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Fr.이장선, 조미연, 홍테레사, 최혜경, 김영희, 김윤경, 이창하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이영애, 강은현, 김현숙, 노여순, 원점순, 윤길순, 김귀연, 김미선, 김효숙, 허영애, 이숙희, 임춘옥, 김금란, 이영주, 이현미, 김현주, 이병숙
- 부산성모병원 : 박주설, 김경희, 오현서, 윤정연, 정귀미, 이혜련, 윤외자, 정춘양, 김향란, 정육희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김종성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 찬조금 : 박호영, 김영희
- 제22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물품 후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황관옥 협회장
 찬조금 : 협회장 황관옥, 협회 이사 (유양숙, 엄혜아, 윤명숙, 박명희, 조민정, 유정희, Sr.박명희, 강은미)